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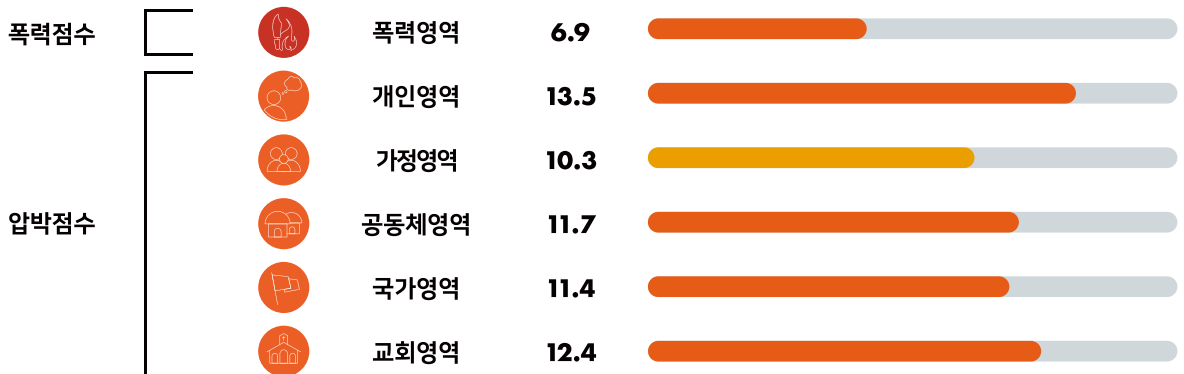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기독교 박해지수
47 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은 대체로 키르기스인들과 접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다. 가장 많은 침해를 경험하는 집단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이다. 일부는 가족에 의해 장기간 감금되고 구타를 당한다. 지역 이슬람 교사들은 이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며, 그 결과 이들이 공동체에서 추방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지방 당국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역 무슬림 공동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경향이 있다.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국가 정보

지도자 :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인구 : 6,840,000명

기독교인 수 : 263,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63,000	3.8
무슬림	6,061,000	88.6
불가지론자	316,000	5.3
무신론자	85,100	1.2

출처²

1991년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공산주의 정권은 2005년에 '튈립 혁명'으로 알려진 국민 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의 체제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교체한 첫 번째 국가였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재임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최근 몇 년 사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당국은 정당한 공적 비판과 평화적 반대의견을 모든 형태에서 억누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했다", 특히 언론인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민주화의 흐름 외에도,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우려 사항으로는 만연한 부패, 긴장된(때로는 폭력으로 번지기도 하는) 민족 간 관계의 역사, 국경

안보의 취약성, 그리고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이 있다. (World Factbook Kyrgyzstan, 2024년 8월 29일 열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에 따르면 "2023년 키르기스스탄의 종교 자유 여건은 악화되었는데, 당국이 종교를 규제하는 기존의 제한적 법규를 점점 더 강하게 집행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온라인 종교 표현, 집단 종교 예배 및 학습,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은 종교 자료의 소지 등 종교 활동을 엄격히 처벌했다." 법은 모든 종교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

키르기스스탄의 문화는 이슬람 가치와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소련 시대 70년간의 무신론 정책도 이를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며,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억압뿐 아니라 주변 사회로부터의 압박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매장이 무슬림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저지된다는 보고가 여러 해 동안 자주 제기되어 왔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World Christian Database)에 따르면, 무슬림은 인구의 86.6%를 차지하며 대다수가 수니파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부

¹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² 자료 출처: Zurlo G. A. 및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4년 5월 열람

는 엄격한 세속주의를 표방한다. 1991년 독립 이후 키르기스스탄에서 나타났던 기독교의 초기 성장세는 멈추었고, 현재는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의 교회들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신자들의 이주를 겪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여러 교파들 사이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무슬림들의 압력은 대도시 밖에서 더 크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는 고립을 강요받지 않으며, 따라서 점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 집단(그중에서도 러시아 정교회(ROC)가 압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은 키르기스인들 사이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당국도 이들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는 ROC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를 자극하는데 관심이 없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사건들이 하나의 선례가 되었다.

기독교 개종자

키르기스스탄 사회는 문화적으로 이슬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박해의 부담을 가장 크게 짊어진다. 이들은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지방 당국 포함)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 집단은 주로 전도 활동과 청년 사역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들은 때때로 당국에 의한 급습, 협박, 체포, 벌금 부과를 겪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독재적 편집증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을 넘어서는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9년에 새로운 종교법이 도입되어 많은 제약이 부과되었다. 2015년에는 당국의 압력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종교 관련 법안 초안은 현재도 논의 중이다. 이 새 법(아직 시행되지 않음)은 각 교회 공동체가 최소 500명의 교인 수를 갖추도록 요구할 것이므로, 교회 공동체의 등록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씨족 억압과 결합된 이슬람적 억압

토착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기 위해 가족, 친구, 지역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받으며 때때로 신체적 폭력도 경험하게 된다. 일부 개종자들은 가족에 의해 장기간 감금되고 구타를 당한다. 지역 이슬람 교사들은 이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며, 그 결과 이들이 공동체에서 추방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개종자들의 기독교식 매장은 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며, 무슬림 마을 주민들의 반대를 자주 촉발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만,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는 가족 안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위치에 두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언어적·신체적 학대, 가택 연금, 강제 결혼, 가정폭력, 강간을 겪을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신부 납치의 오랜 전통이 있으며, 농촌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 개종자들이 납치되어 무슬림과 결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 여성들은 무슬림 남편에 의해 이혼당하는 일이 흔하다. 무슬림 배경의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사회적 공동체/네트워크 접근 차단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가택연금)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남성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대체로 남성이 경제적 부양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남성이 신앙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을 잃으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된다. 개종 사실이 알려진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거칠게 심문을 받는다. 교회 지도자들(맥락상 대체로 남성)에 대한 박해는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더 넓은 회중에도 영향을 미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준다. 기독교 남성들은 직장, 군대, 지역 공동체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겪는다. 압력은 대도시에서 떨어진 농촌 지역에서 가장 크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공동체 자원 접근 차단
- 상속권·재산권 박탈
- 사업·취업·근로 접근 제한 등 경제적 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폭력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5	47	66
2024	61	59
2023	59	59
2022	59	58
2021	55	58

키르기스스탄의 점수(66점)는 전년도(약 58점)보다 높다. WWL 2025에서 삶의 5개 영역 모두에서 압력이 증가했는데, 증가 폭이 매우 크지는 않다. 키르기스스탄 점수가 상승한 것은 훨씬 더 많은 폭력 사건 수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대부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개인 영역과 교회 영역에서 압력이 가장 크다. 이슬람적 억압(씨족 억압과 결합된 형태)이 개인 영역과 가족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재적 편집증은 국가 영역과 교회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 두 동인은 공동체 영역에서 서로 '만난다'. 무슬림 가족, 친구, 마을 주민들은 개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한을 부과한다.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기관을 넘어서는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교회 공격/훼손:** 소식통들은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12월에 등록된 여러 교회와 신학교가 위생 기준이나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여러 구실로 폐쇄되었다고 보고했다. 오시 지역에서는 더 많은 교회가 폐쇄되었다.
- **기독교인 체포:** 소식통들은 2024년 7월에 이식쿨(Issyk-Kul)에서 종교 운동 “Word of God”의 추종자인 외국인 3명이 구금되었다고 보고했다.
- **기독교인 강제 결혼:** 소식통들은 소녀 3명이 강제로 결혼했다고 보고했다.
- **기독교인 주거지 이탈 강요:** 소식통들은 극심한 가정폭력 때문에 최소 10명의 기독교인이 부모의 집에서 나가도록 강요받았다고 보고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교회나 기독교 건물 공격 혹은 폐쇄 건수	구금된 기독교인 수	강제로 결혼을 강요받은 기독교인	국내 실향(내부)이주 기독교인
2025	10*	3	3	10*
2024	0	0	0	8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정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개종자들은 발각될까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 한다. 이들은 만남을 가질 때 특히 조심해야 하며, 가족에 의해 감시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신자들은 국가와 그 요원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십자가 등을 착용하는 것을 피한다. 비전통적 개신교인들도 전도 혐의로 고발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 당국이 이슬람 공동체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그러하다.

가족 영역

개종자들의 가족은 공동체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사망자를 매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독교인의 매장은 지역 공동체와 그 지배자들에 의해 자주 거부된다.

법은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금지한다. 때때로 학교와 교육기관의 행정 당국은 “사이비 종파”에 대응하기 위

한 국가 지원 모임을 마련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복음주의 교회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한 선전 활동이다. 개종자들의 자녀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교사와 동급생들로부터 학교에서 모욕과 비난을 자주 겪는다.

공동체 영역

국가는 등록되지 않은 교회 집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을 반대한다. 개종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기존의 관습과 규범 등을 유지하고, 마을에서 열리는 이슬람 축제에 참석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역사적 교회에 속해 있다가 비전통적 교회 집단으로 옮긴 기독교인들도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받는다. 이 경우 그러한 압력은 당국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하는 것이다.

국가 영역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행동을 하는 종교 단체를 금지한다. 또한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확립하고, 종교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은 모든 종교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 당국은 극단주의로 간주하는 21개의 “종교 지향”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했으며, 금지된 종교 자료를 배포한 한 단체의 구성원 9명을 구금했다.

교회 영역

교회 등록은 의무이지만, 당국과의 등록 절차는 번거롭고 많은 제한을 포함한다. 가장 큰 문제는 등록 허가를 받기 위해 교회가 200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사실상 어떤 교회도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이다. 수년간 계류 중인 법안 초안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명 수를 5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종교법 제4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이 종교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키르기스스탄은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키르기스스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6조).
- 교회는 급습을 당하고, 예배는 방해받으며, 참석자들은 자의적으로 체포된다 (ICCPR 제9조, 제18조, 제21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은 당국과 주변 공동체에 의해 감시된다(ICCPR 제17조).

키르기스스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히즈브 우트-타흐리르(Hizb ut-Tahrir)와 야킨 인카르 (Yakyn Inkar) 같은 무슬림 단체들을 포함해, 극단주의로 간주하는 21개의 ‘종교 지향’ 단체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법에 따르면 금지된 단체들은 온라인 자료 게시를 포함해, 국내에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8월에는 정부가 남부 오시(Osh) 지역의 예배 장소들을 급습하고 모스크 39곳과 마드라사 21곳을 폐쇄했다. 급습 이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폐쇄된 모스크들은 공식 서류나 등록이 없었고, 확립된 건축 및 시공 기준을 위반하여 건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종교 단체들은 등록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을 계속 보고했는데, 특히 신자임을 밝힌 시민 200명의 서명을 수집해야 한다는 요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호와의 증인과 텡그리 신앙인들(전통 종교 신자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수년 동안 신청이 계류된 채로 공식적인 조치가 없었다.”

오픈도어의 키르기스스탄 사역

오픈도어는 중앙아시아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다음과 같은 사역을 통해 돕고 있다:

- 문서 자료 배포
- 기도 지원
- 성경 교육
- 아동 및 청소년 교육
- 여성 사역
- 현장 동행 사역
- 사회 및 의료 사역
- 직업 훈련 및 소액 대출
- 아동, 남성, 여성 재활 센터와 같은 사
- 회·경제 개발 프로젝트



- 이 문서의 내용은 매년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의 연구 부서인 월드 와치 리서치(WWR)에서 발행하는 보다 상세한 WWL 박해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지만, 출처를 항상 다음과 같이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5 Open Doors International.
- 모든 간략한 국가 프로파일은 오픈 도어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의 연구 페이지에서 'Advocacy resources' 하에 접근할 수 있으며, WWL 국가별 박해 동향 보고서, 국가별 배경 정보, WWL 방법론 최신 업데이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오픈 도어 분석 웹사이트(비밀번호: freedom)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문서의 많은 사진은 설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